

미성년 판매 방어 점검표

나이 기준부터 신분증 확인, CCTV 세팅, 적발 후 대응까지 한 번에 점검해 보세요.

1. 우리 매장 방어 세팅

아래 항목을 채우면 영업정지 면제를 받을 준비가 됐는지 보여요.

오늘 매장 설비를 보고 적어보세요.

CCTV·녹화

CCTV 녹화 보존 기간 (권장 60일) _____ 일

카운터 사각지대 여부 _____

신분증·교육

신분증 QR 스캐너 연동 여부 _____

최근 신분증 확인 교육 실시일 _____

보존 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카운터에 사각지대가 없어야, 신분증 위조를 CCTV로 입증해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. 스캐너 연동과 교육 기록도 방어에 도움이 돼요.

2. 판매 전 확인

술·담배를 팔기 전에 알바생이 매번 확인해야 할 것들이에요.

교대 때마다 짚어 보세요.

□ 2026년 나이 기준

2008년생부터는 생일과 상관없이 술·담배를 팔면 안 돼요. 2007년생은 1월 1일부터 성인이에요.

□ 인정되는 신분증

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과 정부24·정부 모바일 신분증·PASS만 인정돼요. 학생증·사원증은 안 돼요.

□ 모바일 신분증 캡처 함정

정지된 캡처 화면은 신분증이 아니에요. 움직이는 시계·워터마크를 확인하거나 QR을 스캔해요.

□ 대리구매 정황

성인이 사서 밖의 청소년에게 건네는 게 보이면 결제를 멈춰요. 방조하면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요.

3. 적발되면 순서대로

당황해서 기한을 놓치는 게 제일 위험해요.

이 순서대로 대응해 보세요.

□ CCTV 백업

그 시간대 녹화본을 USB나 외장하드에 바로 백업해요. '바빠서 못 봤다'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해요.

□ 사전통지서 확인

지자체가 보내는 '행정처분 사전통지서'의 의견제출 기한(보통 10~14일)을 놓치지 마세요.

□ 면제·감경 의견서

기한 안에 CCTV 등 증빙과 함께 면제·감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관할 부서에 내요.

💡 2026년 7월 1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·도용했거나 폭행·협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. 그 입증의 핵심이 CCTV라, 화질과 각도부터 점검해요.

© 2026 SAAI

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. 개별 매장의 법률·세무·노무 자문이 아니므로 매장 규모·근무 형태·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, 본 자료를 활용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점주 본인에게 있어요. 중요한 결정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(공인노무사·세무사·변호사 등)와 상의하세요.